

# 해외 한글학교 당면 과제 및 발전 방향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김윤주\*

|| 차례 ||

- I. 서론
- II. 선행연구 검토
- III. 프랑스 한글학교 현황과 특성
- IV. 한글학교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           】

본고는 유럽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의 운영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해외 한글학교의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지 학교장과 교사 면담, 수업 참관 등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프랑스는 파리 소재 한글학교와 지방 소재 한글학교의 현황에 큰 차이가 있다. 학교의 역사와 규모에도 차이가 있고, 학습자 구성이 크게 다르다. 파리의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유아동과 청소년 학습자가 주를 이루고, 지방 한글학교는 외국인 성인 학습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체류 기간에 따른 차이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교수-학습의 목표와 학습자 동기, 교육과정과 수업 운영 방식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의 발전을 위해 첫째, 재외동포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화된 교육과정과 교재 등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 교수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둘째, 학습자의 연령별 변인에 따른 교재 및 교수 자료, 교수법 개발도 시급하다. 셋째, 초중고 학생의 경우 현지 정규학교 및 교육과정과의 융합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넷째, 단기 체류자와 영구 거주자 사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교사 교육과 재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야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조교수

할 과제이다. 여섯째, 현지 지역사회와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장기적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수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은 너무나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도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해외 여러 지역 여러 국가 소재 한글학교와의 정보 교환 및 차별화 방안, 현지 지역사회 안착 및 조화를 위한 방안, 교육 내용 및 수업 설계의 현지화, 교육과정 차별화 등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재외동포, 한글학교,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교육, 프랑스, 유럽

## I. 서론

본고는 유럽 지역, 그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 내 한글학교의 운영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검토한 후, 해외 한글학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프랑스 소재 13개 한글학교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각종 통계 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 연구를 기반으로, 학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참조해 각 학교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수업 참관을 통해 실제 교육과정 구현 및 교수 자료 활용, 교수-학습 과정과 활동 등을 관찰하였다. 아울러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의 다양한 보고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정책적 지원 상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다각도의 접근은 프랑스 지역에 산재해 있는 여러 한글학교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며, 나아가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및 해외 한국어교육에 대한 논의의 장을 확장하고 심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글학교는 해외 여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 기관이다. 공식적으로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최초로 명문화한 <재외동포재단법>(1997)<sup>1)</sup>의 정의에 따르면, 재외동포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생활·거주하는 자’이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한글학교 외에도 국내외 여러 기관과 정부 부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한국교육원, 한국학교 등이 한글학교에 대한 논의에서 종종 함께 다루어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재외국민에게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외국에 설립된 한국학교·한글학교·한국교육원 등의 교육기관’을 ‘재외교육기관’이라고 함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한국학교’는 ‘재외국민에게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학교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에 설립된 교육기관’이고, ‘한글학교’는 ‘재외국민에게 한국어·한국역사 및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기 위하여 재외국민단체 등이 자체적으로 설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록된 비정규학교’를 지칭한다. ‘비정규학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외교육기관 중 그 규모가 가장 커서, 2017년 3월 현재 113개국에 소재한 1,787개 한글학교에 10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sup>2)3)</sup>

---

1) 재외동포에 대한 정의는 <재외동포재단법>(법률 제5313호) 제2조에 명시되어 있다. <재외동포재단법>은 1997년 3월 27일에 제정되었고, 2010년 3월 17일에 개정(법률 제10096호)되었다. 재외동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하는 최초의 문서다(박채형, 2011:75).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지역의 한글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 한글학교들이 지니고 있는 상황적 특수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한글학교 발전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볼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이루어진 해외 한글학교 관련 논의에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지역 한글학교들이 어떠한 상황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교육적, 행정적 처방이 필요한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해외 한글학교 운영은 물론, 나아가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의 문제와 관련해 얼마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넓히고 논의를 심화해 가는 데에 작은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 1. 선행연구 검토

국내외 한국어교육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크게 발전하였고, 이에 힘입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의 문제도 다양한 논의들이 심도 있게 펼쳐지고 있다. 김윤주(2018a, 2018b)에서는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 있는데, 한글학교에서의 한국어교육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범주를 좀 더 확대해, 부수적으로라도 한글학교를 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있는 논문까지 추려보면 대략 50여 편 정도 된다. 하지만 대부분이

2) 스테디코리아안(<http://study.korean.net>)에 탑재된 외교부 자료 참조.

3) 이에 반해, 같은 기간 재외 한국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개국에 32개교가 있으며, 이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13,770명 수준이다.

북미 지역 한글학교에 대한 연구였고,<sup>4)</sup> 200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타 지역 한글학교에 대한 연구가 간간히 진행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sup>5)</sup> 그나마도 지역별로 한두 편 수준이다.

유럽 지역 한글학교 관련 연구로는 민정호·전한성(2016), 전한성·민정호(2017) 등이 있다. 전자에서는 유럽 지역 한글학교에서의 효과적인 한국어교육 방안 모색을 위한 시도로서 지역 맞춤형 융합 한국어 수업 설계 방안을 소개하고 있고, 후자에서는 유럽 지역 한글학교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학교 수, 규모, 학생 수 등 전반적 학습 환경은 물론, 교육 목표, 수업 설계 및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교재, 교사 선발 등 한글학교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자료를 구축하고 운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는 것이다. 이 두 연구는 그간 연구 성과가 미약했던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글학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및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한 모형을 구안하여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아직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파악은 시도하지 못하고 있고, 모형 적용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점에서 후속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 관련 연구로는 강승혜(2012)와 박혜경·서진숙(2016) 등이 있다. 강승혜(2012)는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현황을 간략히 조사한 후,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

4) 미국 소재 한글학교에 대한 연구로 장원동(1999), 김윤주(2010), 박채형(2011), 임철성 외(2013), 박채형(2014), 김봉국(2018) 등 다수가 있다.

5) Andrew Finch(2009)는 영국 소재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쟁점을 살펴보고, 정재훈·김대희(2009)는 호주 지역 한글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안수정(2012)은 동남아시아 지역 한글학교의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재 개발 절차와 교재 개발 방향, 단원 구성 및 교수요목을 소개하고 있다. 파리한글학교 운영 현황을 소개하고 프랑스어권 학습자로 범주를 특화하여 교재 개발 방안을 마련하여 실제 맞춤형 교재 출간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의 상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sup>6)</sup> 박혜경·서진숙(2016)은 프랑스 한글학교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 동기와 태도를 조사하였는데, 특히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학급을 분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 선정, 교육 목표와 수준 설정에 차이를 두어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직접적인 한글학교 관련 연구는 아니지만 프랑스의 언어교육과 한국어교육 문제에 대해 참조할 만한 연구로 심승자(2002), 최희재(2011), 배희숙(2016) 등이 있다. 심승자(2002)는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의 구성과 평가 체계를 소개하고, 외국어 평가 기준과 관련하여 한국어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 한불 수교 130주년을 맞아 그동안 제3외국어에 속해 있던 한국어가 2015년부터는 프랑스 교육부에 의해 제2외국어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 문제는 현지 교육 제도는 물론 정치적 사회적 상황과도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국가의 교육 제도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어야 하겠다. 최희재(2011)는 프랑스의 언어교육 지원 정책을 검토하고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며, 배희숙(2016)은 프랑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체계와 특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두 논문 모두 한국 내

6) 프랑스의 한글학교는 파리 소재 한글학교와 그 외 지역 한글학교의 상황이 매우 다르다. 학교의 규모는 물론, 재학 중인 학습자의 구성에서 그러하다. 이에 관해서는 뒤의 3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이긴 하나, 프랑스 내 한글학교 재학생들 중 상당수가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 언어교육 체제와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 참조할 만하다.

## 2. 연구 방법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중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 관련 연구의 성과는 상대적으로 극히 미미한 상황이다. 게다가 프랑스 한글학교를 표제어로 삼고 있다 해도 내용은 파리 소재 한글 학교에 국한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프랑스 지역 13개 한글 학교<sup>7)</sup>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한 후, 당면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다.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에 대한 연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유관 기관의 여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프랑스 소재 13개 한글학교의 학교장과 교사, 학부모, 학생들과의 면담을 시행하였다. 그 중 한 학교는 수업 참관을 실시하였다. 수업 참관도 유아 및 아동, 청소년기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언어 숙달도 수준으로 초·중·고급반을 모두 아우르도록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다면적 접근을 통해 프랑스 내 한글학교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쟁점들을 검토한 후,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와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

7) 현재 프랑스에는 14개의 한글학교가 운영 중이나, 본고에서는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학교 하나를 제외하고 13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삼았음을 밝혀 둔다.

### III. 프랑스 한글학교 운영 현황과 특성

#### 1. 유럽 지역 한글학교 운영 현황

##### (1) 유럽 지역 재외동포 현황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재외동포 현황을 살펴보기로 하자. 외교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재외동포 수는 740만 명을 넘어섰다. 지역별 재외동포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재외동포 현황<sup>8)</sup>

지역	동포 수 (명)	백분율 (%)		유럽 지역 국가	동포 수 (명)
동북아시아	3,366,656	45.31		독일	40,170
남아시아,태평양	557,739	7.51		영국	39,934
북미	2,733,194	36.78		<b>프랑스</b>	<b>16,251</b>
중남미	106,784	1.44		스페인	4,520
<b>유럽</b>	<b>630,730</b>	<b>8.49</b>	→		
아프리카	10,854	0.15			
중동	24,707	0.33			
<b>총계</b>	<b>7,430,664</b>	<b>100</b>			

특히 본고의 대상이 되는 프랑스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유럽 지역을 먼저 살펴보자면, 63만여 명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전체 재외동포 규모로 보자면, 동북아시아<sup>9)</sup>와 북미<sup>10)</sup> 다음의 규모이다. 유럽 지역 국가들 중 프랑스는 독일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유럽

8) 외교부(2016.12.31) 통계 자료를 참조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9) 동북아시아 지역(45.31%)은 다시 중국(34.29%)과 일본(11.02%)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0) 북미 지역(36.78%)은 다시 미국(33.54%)과 캐나다(3.24%)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 국가들의 재외동포 규모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크지 않은 편이나,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한국어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 증가 양상 측면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표 2〉 재외동포 증가 추세

	2013년	2015년	2017년	전년대비 증감율(%)
동북아시아	3,467,057	3,441,718	3,366,656	-2.18
남아시아,태평양	485,836	510,633	557,739	9.23
북미	2,297,425	2,463,043	2,733,194	10.97
중남미	111,156	105,243	106,784	1.46
유럽	615,847	627,089	630,730	0.58
아프리카	10,548	11,583	10,854	-6.33
중동	25,048	25,563	24,707	-3.35
<b>총계</b>	<b>7,012,9117</b>	<b>7,184,872</b>	<b>7,430,664</b>	<b>3.42</b>

(외교부 2016.12.31. 통계)

한편, 전체적인 재외동포 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글학교 수는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의 주요 관심 지역인 유럽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 2013년부터는 그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1)</sup> K-pop의 인기와 한류 현상에 힘입어 세계 각지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교육기

11) 재외동포재단(2014), 스테디코리안(2016, 2017), 민현식(2014), 김봉섭(2016) 등의 자료를 참조하여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한글학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전세계	1,934	1,918	1,875	1,855	1,787
유럽	358	351	328	325	319

관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상이다.

## (2) 유럽 지역 한글학교 현황

2017년을 기준으로 해외 전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한글학교는 <표 3>에 서와 같이 113개국, 160개 공관, 1,787개교에 이른다. 전체 학생 수는 10만여 명이며, 교사 수는 1만 6천 명에 육박한다. 주지하다 시피, 가장 많은 한글학교와 학생이 분포하고 있는 곳은 북미 지역이다. 미국과 캐나다 단 두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한글학교 수와 재학생 수는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는다. 유럽 지역은 2017년 3월을 기준으로 112개 학교에 6,256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표 3> 2017년도 전세계 지역별 한글학교 현황<sup>12)</sup>

구분	국가	공관	학교 수	교사 수	학생 수
아시아	19	42	298	2,347	19,199
대양주	4	7	71	907	5,814
북미	2	16	968	9,983	52,759
중남미	20	21	85	738	5,313
<b>유럽</b>	<b>26</b>	<b>31</b>	<b>112</b>	<b>944</b>	<b>6,256</b>
러시아·CIS	10	14	207	657	9,097
아프리카·중동	32	29	46	363	1,896
<b>총계</b>	<b>113</b>	<b>160</b>	<b>1,787</b>	<b>15,939</b>	<b>100,334</b>

(2017.3.31. 기준)

유럽 지역으로 범주를 좁혀서 살펴보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3개 국가에 분포한 학교와 학생, 교사의 수가 유럽 전체 규모의 절반이 훌쩍 넘는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학생, 교사의 숫자에서 독일이

12) 스티디코리아 자료 참조([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mt.SupportInfoAction?p\\_menuCd=m60101](http://study.korean.net/servlet/action.cmt.SupportInfoAction?p_menuCd=m60101)).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프랑스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체 한글학교와 학생 수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현상과 달리 유독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표 4〉 유럽 지역 한글학교 현황<sup>13)</sup>

	국가	학생 수	교사 수	학교 수
1	독일	1678	241	32
<b>2</b>	<b>프랑스</b>	<b>980</b>	<b>113</b>	<b>13</b>
3	영국	839	140	20
4	네덜란드	424	52	2
5	스페인	249	33	3
6	터키	259	45	4
7	이탈리아	224	38	4
8	스위스	187	31	5
9	슬로바키아	143	20	2
10	오스트리아	135	21	4
11	스웨덴	132	15	2
12	폴란드	130	25	3
13	벨기에	122	17	2
14	체코	118	19	2
	기타 12개국 <sup>14)</sup>	512	107	14
	<b>총계</b>	<b>6,132</b>	<b>917</b>	<b>112</b>

13) 재외동포재단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 <2017년 재외동포 교육기관 현황>을 참조하여 본고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14)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아일랜드, 몰도바, 노르웨이, 불가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알바니아, 코소보 등 12개국에 이에 포함되며, 국가별로 각각 1-2개교씩 한글학교가 있고, 각 나라별 전체 한글학교 재학생 수는 100명 미만, 교사 수는 10명 안팎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외동포 숫자를 살펴보아도 유럽 지역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는 상위 1, 2, 3위로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한다. 특히, 프랑스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숫자에 비해 한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는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2. 프랑스 한글학교 현황 및 운영 실태

### (1) 한글학교 역사와 현황

본 절에서는 본격적으로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프랑스에는 현재 14개의 한글학교가 운영 중이다.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한 개 학교를 제외하고, 13개 학교에 재학 중인 전체 학생 수는 980명, 교사 수는 113명에 이른다.

〈표 5〉 프랑스 내 한글학교 현황<sup>15)</sup>

	학교명	설립연도	학생 수	교사 수
1	파리 한글학교	1974	257	24
2	리옹 한글학교	1994	71	6
3	그르노블 한글학교	1998	46	4
4	스트라스부르 한글학교	1999	45	8
5	엑상프로방스 한글학교	1999	132	15
6	툴루즈 한글학교	2000	28	5
7	파리오페라 한글학교	2003	53	15
8	보르도 한글학교	2004	70	6
9	몽펠리에 한글학교	2005	93	9
10	디종 한글학교	2006	78	6
11	클레르몽페랑 한글학교	2007	60	7

15) 재외동포재단(2017.9.30.현재) 자료 참조. 프랑스 내 한글학교는 현재 14개 학교로 알려져 있다. 이 중 한 학교는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본고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밝혀 둔다.

12	블르와 한글학교	2007	23	2
13	솔레 한글학교	2009	24	6
총계			980	113

파리시 14구에 위치한 파리 한글학교가 1974년 가장 먼저 설립되었고, 규모도 가장 크다. 1994년 리옹 한글학교가 세워지기 이전까지 프랑스 내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을 20년 간 홀로 책임져 온 한글학교이다. 1994년에 리옹 한글학교가 설립된 이후로, 1990년대 후반에는 그르노블, 스트라스부르, 액상프로방스 한글학교가 연이어 설립된다. 이 중 액상프로방스 한글학교는 뒤늦게 설립된 학교임에도 현재 학생 수가 130명이 넘고, 교사 수도 15명에 이르는 규모가 큰 학교로 발전하여 이 지역 한인사회의 한국어교육은 물론, 외국인 학습자의 유입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해마다 한 개 학교가 설립되어, 프랑스 내 한글학교는 이제 재외동포는 물론 외국인 학습자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거점 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툴루즈, 파리오페라, 보르도, 몽펠리에, 디종, 클레르몽페랑, 블르와, 솔레 한글학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6〉 운영 연한별 학교 수

운영 연한	6~10년	11~15년	16~20년	21~30년	30년~
학교 수	1 (8%)	6 (46%)	4 (30%)	1 (8%)	1 (8%)

〈표 7〉 교사 인원별 학교 수

교사 수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학교 수	3 (23%)	7 (54%)	2 (15%)	0 (0%)	1 (8%)

운영 연한별로 살펴보면,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학교가 거의 대부분이며, 파리한글학교는 45주년을 앞두고 있다. 교사의 수는 6명~1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학교가 54%로 가장 많고 5명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학교도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파리한글학교는 교사 수가 20명이 훌쩍 넘는 규모가 큰 학교다.

## (2) 학습자 구성

해외 한국어교육 현장을 살펴보면 어느 지역이나 그 지역만의 특수성이 있게 마련인데,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들은 학생 구성 면에서 특히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 <표 8>을 참조하여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표 8> 프랑스 한글학교 학생 현황

학교명	전체 학생 수	혈통 <sup>16)</sup>		연령				
		재외 동포	순수 외국인	유아	초등	중등	고등	성인
파리	257	248	9	75	133	49	0	0
리옹	71	25	46	12	9	8	2	40
그르노블	46	7	39	1	3	0	0	42
스트라스부르	45	20	25	8	9	3	0	25
엑상프로방스	132	28	104	6	13	4	1	108
툴루즈	28	10	18	2	3	4	1	18
파리오페라	53	53	0	18	28	7	0	0
보르도	70	17	53	13	2	2	0	53
몽펠리에	93	32	61	3	16	9	17	48
디종	78	34	44	11	8	7	2	50
클레르몽페랑	60	20	40	7	8	10	12	23
블르와	23	4	19	0	0	2	12	9
솔레	24	4	20	0	0	0	4	20
<b>총계</b>	<b>980</b>	<b>502</b>	<b>478</b>	<b>156</b>	<b>232</b>	<b>105</b>	<b>51</b>	<b>436</b>

먼저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습자의 연령별 분포가 타 지역 한글학교와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재외동포 한국어 교육기관으로서의 한글학교가 주로 유아나 아동의 한국어 교육에 집중되고 있다는 일반적인 연구 결과와 달리,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들의 경우엔 성인 학습자 비율이 44%로 매우 높다. 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아동 학습자 비율은 40%에 그치고, 중·고등학교 청소년 학습자가 나머지 16%를 채우고 있다.

파리한글학교와 파리오페라 한글학교에는 성인 학습자가 없지만, 나머지 학교에는 모두 성인 학습자가 유아나 초·중·고교 학령기의 학습자보다 많다. 심지어 블르와 한글학교와 솔레 한글학교는 학생 수가 거의 같은, 비슷한 규모의 학교인데, 이 두 학교에는 흥미롭게도 유·아동은 전무하며 오직 성인과 중·고등학생만 재학 중이다.

〈표 9〉 연령별 학생 수

연령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학생 수	156 (16%)	232 (24%)	105 (11%)	51 (5%)	436 (44%)

둘째, 해외 한글학교가 대개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재외동포 자녀의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프랑스 지역의 한글학교에는 순수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이 재학 중이라는 사실이다. 이 특징은 앞선 첫 번째 특성보다도 밀접히 연결된다.

16) 재외동포재단에서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통계표에서 ‘재외동포’란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韓民族)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순수외국인’은 ‘재외동포가 아닌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입양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도 재외동포에 해당한다.

〈표 10〉 유형별 학생 수

유형	재외동포	순수외국인	계
학생 수	502 (51%)	478 (49%)	980 (100%)

프랑스 소재 한글학교의 전체 학생 수 980명 중에 재외동포의 수는 502명(51%), 순수 외국인인 수는 478명(49%)이다. 재외동포와 거의 같은 비중의 외국인 학생들이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 학습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파리에 위치한 두 개 학교에만 유일하게 재외동포 학습자가 주를 이루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외국인 학습자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학교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외국인 학습자의 숫자와 성인 학습자의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프랑스인 성인 학습자가 한국어 학습을 위해 해당 지역 한글학교를 찾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은 교사 인터뷰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같은 한글학교라고 해도 프랑스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요. 한국어교육 라인이 둘로 나뉘는데, 재외동포는 한글학교에서, 현지인은 문화원이나 세종학당에서 해요. 파리는 한글학교가 워낙 커서 현지 세종학당 규모랑은 비교가 안 돼요. 프랑스 파리는 문화원이나 세종학당, 사설학원 같은 데서 성인 학습자 수요를 소화할 수 있지만 지방은 여건이 아무래도 그렇지 못하다보니까 한글학교가 성인도 받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거기는 주 수요층이 성인인 셈이에요.

즉, 프랑스 내에서도 지역마다 편차가 크며, 파리 소재 한글학교는 재외동포 학습자로, 지방 한글학교는 순수 외국인 성인 학습자 수요층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체류 기간과 관련해 영구 거주자의 비율이 일시적 체류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11〉 체류 유형별 학생 수

	총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일시	70(7%)	21	32	16	1	0
영주	910(93%)	135	200	89	50	436

일시적 체류자인지 영구 거주자인지에 따라 한국어 학습의 동기와 목표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같은 재외동포 학습자라 해도 한국인 부모를 둔 가정의 자녀인지, 한국인과 외국인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의 자녀인지에 따라서도 한국어 학습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라 학습의 동기과 태도, 목표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에 대한 추적 관찰과 심층 연구가 절실하다.

### (3) 수업 시간 및 학급 편성

이처럼 재학생 중에 외국인 학생이 많은 점, 성인 학습자가 많은 점은 주당 수업일수나 수업 요일 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를 수업하는 학교가 가장 많기는 하지만, 이를 이상 수업하는 학교가 그보다 훨씬 많다. 이 점은 북미 지역 한글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점이며, 파리 소재 한글학교와 지방 소재 한글학교 간에도 차이가 있다. 일주일에 2-3일 수업하는 학교가 6개교나 되고 심지어 4일이나 5일씩 수업을 하는 학교도 각각 1개교씩 있었다.

〈표 12〉 주당 수업 일수

수업 일수	1일	2일	3일	4일	5일
학교 수	5 (38%)	3 (23%)	3 (23%)	1 (8%)	1 (8%)

수업이 토요일과 수요일에 주로 운영된다는 점도 이 나라 교육과정과 맞물려 일어난 현상이다. 프랑스는 수요일에 정규학교 수업이 없다. 북미 지역 한글학교가 주로 토요일에 수업을 하는 것과 달리 프랑스 지역은 수요일에 주로 수업을 하고, 외국인 성인 학습자가 많은 학교는 평일 저녁에도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표 13〉 수업 요일

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학교 수	3	4	8	2	2	9	1

하루 수업 시수는 3시간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가장 많았고, 2시간이나 4시간으로 운영되는 학교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14〉 하루 수업 시수

수업 시수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학교 수	2 (15%)	8 (62%)	2 (15%)	0 (0%)	1 (8%)

학급 편성은 주로 연령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엔 프랑스 의무교육 학제<sup>17)</sup>에 따라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어학당 등으로 나누어 각각 취학 전 만 3세-6세(유치부), 만 6세-12세(초등부), 만 13세-15세(중등부), 어학당(만 6세-14세, 혹은 성인) 등으로 나누어 학급을 구성하고 있었다. 물론 학교의 규모가 작을 경우엔 연령과 언어 수준을 고려하기는 하나 세분화된 학급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17) 프랑스 공교육 제도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각각 3-5-4-3으로 편제되어 있다.

#### (4) 교수-학습 내용

한글학교의 수업은 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어는 한국어 숙달도 수준에 따라 초·중·고급 수업으로 편성되어 진행되고, 한국문화는 사물놀이, 태권도, 전통공예, 요리, 종이접기, 캘리그래피 등 다양한 한국문화 이해 및 체험 활동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열리는 유럽 지역 한국어 글짓기 대회 등을 위한 수업도 진행된다.

한국어 교재는 <한글학교 한국어>나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 한국어> 등이 주교재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지 학습자 구성이 다양한 까닭에, 자체 제작된 교재나 한국에서 들여온 학습 자료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수업 참관 시 인상적이었던 점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습자들이나 중고등학교 학습자 대상 수업에서 한국어 숙달도를 높이기 위한 언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한국의 국어 수업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경우였다. 교수-학습 내용이나 학습 활동, 사용되는 용어들이 한국어 수업이라기보다 국어 교과 의 문학 수업에 가까워 보이는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고전문학 작품을 다루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sup>18)</sup> 이 점에 대해서도 교사 면담을 통해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바칼로레아 20점 중에서 10점이면 그때부터 가산이 되는데 일종에 보너스 점수인 셈이에요. 문과는 20점 만점, 이과는 20점 만점에 두 배를 쳐 줘요. 12점이면 보너스 점수가 2점, 이과라면 4점 추가해 주는 거죠. 바칼로레아 중에서 16점이면 트레 비앵(très bien), 14점이면 비앵(bien), 12점 아세 비앵(assez bien)인데, 말하자면 최우등, 우등, 장려인 셈이에요. 특별 우등생 같은

18)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한 학급의 한국어 수업에서는 양사언의 '태산가(泰山歌)'를 칠판에 크게 써 놓고 교사를 따라 읽으며 작품의 해제를 공부하고 있었다.

거죠. 총점 최우등에서 4점이면 큰 점수예요. 프랑스 아이들이 한국어로 이렇게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즉, 프랑스 대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고, 그 점을 고려한 한국어 수업은 바칼로레아 출제 형식에 맞추어 고급 수준의 문학작품 해제와 이해, 논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사례가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글학교의 주요 기능이라 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만큼 현지 한글학교를 통해 기대하는 목표와 내용, 학습의 동기가 다양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는 있다.

## IV. 한글학교 발전 방향 모색

### 1. 운영 현황 분석 결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의 개념 및 방향 설정과 관련해 그동안 축적되어 온 논의는 크게 네 가지 정도의 방향에서 다루어져 온 것으로 파악된다. 김윤주(2018b)에서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초기엔 주로 ‘민족교육’의 정체성에 기반한 ‘모어로서의 국어교육’ 성격이 강했고, 이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가 발아하고 성장하면서,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도 ‘국어교육’이 아니라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혹은 ‘이중언어 교육’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이 확산된다. 그러다 최근에는 ‘계승어(Heritage Language)’ 개념이 도입되고 학문적 토대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의 정

체성을 계승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에 이견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 한글학교의 현실은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소재 13개 한글학교를 대상으로 현황 파악을 한 결과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가장 큰 특징으로, 프랑스의 한글학교는 파리와 그 외 지역 소재 한글학교의 현황이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파리 소재 한글학교는 성인 학습자가 전무하고 유치원 및 초등학생 학습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타 지역 한글학교는 성인 학습자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파리 소재 한글학교는 소위 한민족인 재외동포 학습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타 지역 한글학교는 순수 외국인 학습자가 재외동포 학습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체류 유형별로는 전체적으로 영주권자가 일시적 체류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러한 인구학적 요인의 특성은 학습자의 학습 목표와 학습 동기, 태도 등에 차이를 유발하고 있었다. 그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현황, 수업 시수와 학급 편제, 교수-학습 목표와 내용 등에 있어서 일반적인 한글학교 관련 논의에서 많이 알려진 북미 지역의 특성과는 다른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 내에서도 파리와 파리 이외의 지방 도시 한글학교는 상황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 2. 한글학교의 발전적 운영 방안

이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운영 방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지역 한글학교의 특성과 학습자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과정과 교재 등 학습 자료 개발이 필요하고, 수업에 활용할 방안, 교수법 개발 등이 필요하다. 현재 <프랑스어권 학습자를 위한 맞춤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있기는 하나 그 내용이 특별히 프랑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같은 재외동포 가정 자녀라 해도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와 한쪽이 외국인인 다문화가정의 경우엔 언어 환경과 학습 방향, 동기과 태도, 목표 수준 등에 차이가 있다. 이러한 요소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져야 하겠다.

현재 <재외 한글학교용 표준 교육과정> 개발이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완료되었으나 현장의 이해도나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최근에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을 한글학교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고는 있으나, 역시 북미 지역, 특히 미국 한글학교에 편중된 연구들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는 미국과는 많은 점에 차이를 보인다. 또 프랑스 내에서도 파리와 그 외 지역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습자의 연령 변인에 따른 교재 및 교수 자료, 교수법 개발과 보급도 시급하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수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수업을 같은 교재로, 같은 교수법으로 진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한글학교용 교재로 개발된 것들은 대부분 아동용 교재이다. 그렇다보니 현지 청소년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교재가 거의 없어 한국의 국어 교과서나 문제집 등을 발췌해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언어 교육에 있어 숙달도와 연령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교재를 구성하는 일은 단순치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특히, 청소년 학습자는 해외에서의 한국어교육과 한국학 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잠재적 역량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유아동기 시절 즐겁게 다니던 학생들도 청소년기로 접

어 들면서 한글학교를 멀리하게 되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으나, 가장 근본적으로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동기를 지속시킬 수 있는 교재와 자료의 부재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초·중·고 학생의 경우 현지 정규학교 및 교육과정과의 융합을 위한 장기적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한글학교에서 수학하게 되는 학생이나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글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 까닭이 없다. 따라서 한글학교에 가면 학업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 지역의 경우, 특히 바칼로레아에서 한국어를 선택하는 학습자가 증가하면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한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현지 교육 제도와 평가 체제를 분석하고, 학습자가 현지 교육 제도와 평가 시스템 속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장기적 학습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단기 체류자와 영구 거주자 사이의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어 학습의 목표와 내용과 과정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 한글학교 학습자의 구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학습의 요구와 동기도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한글학교의 교육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사 교육과 재교육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확대되고 한국어교육 분야에서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현지 한글학교도 점차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에 대한 기대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한글학교 교사 인증제 프로그램, 한글학교 교사 대상 학위 취득 과정, 한국 방문 연수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교사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활용 방안을 모색해

야 할 것이다. 한국어 교수방법과 학습자료 개발 및 활용 방안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

여섯째, 현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 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K-pop과 한류로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고는 하나, 그러한 표면적 변화에 반하는 이면의 적대감이 사라질 수는 없다. 이주의 시대가 되고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고는 하나,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정책적 고민들이 전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 한글학교가 고립되지 않고 지역 사회에 안착하여 공생해 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 한글학교가 단지 '우리의 말과 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기관'이라는 인식에 머무르지 말고, 현지 교육기관과 학교, 공공단체와의 접촉을 통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함께 추구해 갈 수 있는 교육적 목표와 활동을 구상하고 추진해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현지의 교육 문화 부문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장기적인 관심과 협조를 끌어낼 수 있고, 더불어 발전해 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글학교를 통해 한국어를 학습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학습자들의 수용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은 한글학교에서, 그 외 순수 외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세종학당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기관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방의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수용하고 있는 한글학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도 간단치 않고, 또 순수 외국인 학습자를 제외하고 나면 재외동포 학습자만으로 한글학교 유지가 가능한가도 문제가 된다. 외국인 학습자 비중이 큰 한글학교는 세종학당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일부 있으나, 정부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 태생적으로



기원과 본질이 다른 한글학교를 세종학당으로 지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부처와 기관, 전문가와 행정가, 현지 교육 담당자들 간에 현실적 상황에 바탕을 둔 진솔하고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은 너무나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논의의 범주도 매우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해외 여러 지역 여러 국가 소재 한글학교와의 정보 교환 및 차별화 방안, 현지 지역사회 안착 및 조화를 위한 방안, 교육 내용 및 수업 설계의 현지화, 교육과정 차별화, 이원화 필요성 등에 대한 숙고와 논의가 지속적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승혜, 「프랑스어권 재외동포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 프랑스 파리 한글학교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7,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2012, pp.1-39.
- 김봉국, 「미국 블룸팅턴(Bloomington)과 노멀(Normal) 지역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주어문』 38, 영주어문학회, 2018, pp.187-210.
- 김봉섭, 「재외 한글학교 현황 - 재외동포재단의 지원현황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65, 한국민족연구원, 2016, pp.154-168.
- 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1) - 지난 50년간의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문학회, 2018a, pp.325-353.
- 김윤주, 「재외동포 대상 한국어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과 과제(2) - 지난 50년간의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1, 이중언어학회, 2018b, pp.65-91.
- 민정호 · 전한성, 「지역 맞춤형 융합 한국어 수업 설계 방안 연구 - 유럽 지역 한글학교의 효과적인 한국어교육을 위하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10-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6, pp.279-308.
- 박채형, 「재외 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역사적 고찰 - 미국의 한글학교 · 한국 학교 · 한국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25-1,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1, pp.73-94.
- 박채형, 「한글학교의 실태와 과제 - 미국 플로리다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교육과정연구』 8-2,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4, pp.97-115.
- 박혜경 · 서진숙, 「프랑스 한글학교 계승어 학습자의 한국어 학습 동기과 태도 연구 : 한국인 가정과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0-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16, pp.95-115.
- 배희숙, 「프랑스 다문화 언어 교육 체계 분석을 통한 한국 다문화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교육 방향 모색」, 『한국프랑스학논집』 94, 한국프랑스학회, 2016, pp.141-166.
- 심승자, 「프랑스 바칼로레아(Baccalaureat)와 한국어」, 『국어교육연구』 10,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 pp.365-381.
- 안수정, 「한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 동남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3-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pp.191-213.
- 임철성 · 서혁 · 정영아 · 신혜영 · 최진희, 「재미 한국학교의 교수자 여건 및 전문성

- 확보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10-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3, pp.247-274.
- 장소원 · 이수미 · 김은애, 「한글학교 교사를 위한 인증제 프로그램 구현 방안」, 『이중언어학』 66, 이중언어학회, 2017, pp.79-105.
- 장원동, 「재미교포 한인들의 역할과 한글학교 교육의 실태연구」, 『통일연구』 4, 서경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1999, pp.149-160.
- 전한성 · 민정호, 「유럽지역의 한글학교 운영 모형 개발 방향 모색」, 『국어문학』 64, 국어문학회, 2017, pp.307-329.
- 정재훈 · 김대희, 「해외 한글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 호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pp.415-438.
- 최희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교육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 지원방안 모색 - 프랑스의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75, 한국프랑스학회, 2011, pp.45-65.
- Andrew Finch, Korean Community Schools in the UK: Key Issues and Recommendations, *Korean Language Educatin 20-3*,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n Langaue Education, 2009, pp.205-234.

**Abstract**

A Case Study on Confronting Tasks and Future Direction  
of Oversea Korean Language School  
- Focusing on Korean Language Schools in France -

Kim, Yoon-joo

This study reviews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schools in France, discusses major issues, and tries to find future directions for schools. The investigator of this study observed classroom education of Korean language schools in France and interviewed principals, teachers, parents and students of schools. Findings and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tailored and differentiated curriculums, educa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s for oversea Korean students and foreign students. Second, education materials and reference materials for teachers should be diversified considering various ages and generations of students. Third, it would be better if curriculums, planning, and practices of Korean language schools are coordinated with public schools in the target country. Fourth, Korean language schools' education needs to consider differences between short-term residents and permanent residents in the country. Fifth, education of teachers of Korean language schools should be considered seriously.

Meanwhile, there are much needed confronting tasks of Korean language schools that should be discussed, including issues associated with information exchange among Korean language schools in various regions, measures for how Korean language school can root in the community and get along with residents, alternatives for domestica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designs of educations. This study suggests that all these issues should be discussed continuously to have successful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foreign countries.

Key Word : Oversea Koreans, Korean Language School,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n Inherited Langu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as a Second Language, Bi-lingual Language Education, France, Europe

김윤주

소속 :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크리에이티브 인문학부 조교수

전자우편 : everydayxmas2@gmail.com

이 논문은 2018년 8월10일 투고되어  
2018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9월 7일 게재 확정됨.